

정읍은 지금 '구절초 꽃잔치'



제15회 정읍 구절초꽃 축제가 29일부터 10월 16일까지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일대에서 열린다. 지방정원 일대에 만발한 구절초꽃. <정읍시 제공>

"구절초꽃 보러 정읍으로 오세요." 구절초의 은은한 색과 향을 즐길 수 있는 '제15회 정읍 구절초꽃 축제'가 29일부터 10월 16일까지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린다.

축제에서는 10만여㎡의 숲을 가득 메운 구절초를 만끽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축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관광객과 시민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한다.

눈에 띄는 프로그램은 숲속 잠, 꽃과 함께 춤 테라피, 잔디광장 휴식 등으로 방문객들에게 심

내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지방정원 일대 3년만에 개최

10만여㎡ 숲 구절초 만끽

뮤지컬 공연·음식 장터 등 다채

리직 안정을 제공한다.

꽃길 퍼레이드와 마술공연, 구절초꽃 열차, 구절초 페이스페인팅 등도 선보인다.

전망대 일원에는 포토존을 설치해 관광객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무료로 인쇄해 줄 예정이다.

정읍시립합창단의 뮤지컬 식전 공연을 시작

으로 가수 김용림, 최성수, 박강성, 해바라기 등이 출연하는 축하공연도 펼쳐진다.

음식 장터에서는 지역 특산물인 단풍미인 한우, 구절초 국수, 산나물비빔밥, 수수부꾸미, 다슬기 국밥 등 다채로운 먹거리를 맛볼 수 있다.

'어머님의 사랑', '순수', '우아한 자태' 등의 꽃말을 가진 구절초는 여러해살이풀로, 말린 구절초는 한방과 민간에서 부인 냉증·위장병 등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

이하수 정읍시장은 "구절초꽃 축제가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을 축제로 자리 잡은 만큼 정읍의 맛과 편안한 교통, 넉넉한 인심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내장산 '서래봉 구간' 예약 필수

서래봉탐방지원센터~서래봉~벽련암 2.8km 11월까지 예약제

정읍 내장산국립공원 내 서래봉 구간 산행이 오는 11월까지 '예약탐방제'를 통해서만 할 수 있게 된다.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윤대원)에 따르면 오는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내장지구 서래봉탐방지원센터~서래봉~벽련암 2.8km 구간에 대해 '탐방로 예약제'가 실시된다.

국립공원 탐방로 예약제는 자연훼손과 안전사

고 예방 등을 위해 탐방로 출입인원을 제한하는 탐방문화 개선 정책의 일환이다.

내장산국립공원 서래봉 일원은 '노랑붓꽃' 등 멸종위기종 자생지의 훼손과 낙석위험 등이 있어 지난 2020년부터 탐방로 예약제를 실시해 왔다.

탐방로 예약제가 실시되는 기간 해당 구간 산행을 희망하는 탐방객은 국립공원 통합예약 시스템을 통해 출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1일 탐방객 제한 인원은 520명, 1인 동시 예약 인원 수는 10명이다.

시스템을 통한 예약자가 1일 탐방객 제한 인원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 현장 신청도 접수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공원 누리집 또는 국립공원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순찬 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탐방로 예약제가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가을 성수기 탐방객 간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탐방객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남원시, 이달말까지

남원시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남원시 상수도사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음식점 영업행위, 오수·폐수·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등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환경·위생부서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원시의 상수원보호구역은 도동동, 월락동, 고죽동, 신촌동, 이백면 척문리 일원으로 지정돼 있고 현재의 수질은 '좋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소는 주 2회 관리자 점검과 1일

2회 보호구역 순찰 등 상수원보호구역 수시 순찰과 폐쇄회로(CC)TV를 통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어 오염물질 유입 방지를 위한 시설물 점검 및 오염원 관리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며 오염물 유입에 대비해 오탁방지막, 기름방지막, 기름제거포 등에 대한 점검도 완료했다.

남원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상수원의 수질 오염행위는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과 같다"며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시-전북연구원 시정 발전 정책간담회

남원시가 민선 8기 시정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전북연구원과 머리를 맞댔다.

남원시는 최근 전북연구원과 정책간담회를 열어 남원시의 5대 현안 사업을 안건으로 사업별 발전방안을 발굴하고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된 5대 안건은 ▲글로벌 국제농업대학 설립 ▲트렌드 변화에 따른 문화관광 거점 조성 ▲키즈랜드 조성 ▲항공산업 클러스터(드론, UAM) 조성 ▲전원물 화이티브이오산업 육성 등이다.

시는 민선 8기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을 비전으로 주요 정책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전북연구원의 소통·협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정책간담회가 전북연구원과 남원시가 공동발전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전북연구원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일자리·경제 활성화 두 토끼 잡는다

고창군, 기업유치 투자 자문단 위촉...본격 기업 유치



고창군이 친환경 ESG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경제)관계자 5명을 투자유치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이 민선 8기 친환경 기업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고창군은 최근 기업관계자들로 투자유치 자문단을 꾸리고 '친환경 ESG기업 유치' 공약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고창군에 따르면 심덕섭 고창군수는 기업(경제)관계자 5명을 투자유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자문위원들은 국내 주요기업 대표와 경제통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경영노하우, 경제전문지식 광역정보망, 인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국내외 우수·우량기업 투자유치를 살피고, 타깃기업 발굴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앞서 심 군수는 지역 산업구조의 대전환을 선언하고, 지역경제 발전효과가 크고 고용유발 효과가 큰 친환경 기업 유치를 공을 들이고 있다. 이달 들어서 반도체·자동차 부품산업 등 첨단 미래산업과 친환경 ESG기업과의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동시에 고창일반산업단지의 명칭변경도 진행되고 있다. 군은 기존 산단의 노후 이미지를 탈피해 브랜드 가치를 개선하고, ESG 친환경 산업단지로 바뀌길 계획이다.

투자유치 지원단 역시, 기업이 입장에서 산단의 장기적 사업전세과 구도를 잡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